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또 하나의 목소리와 한국 문학의 자리

동아시아 문학이 몰려오고 있다. 그 기운이 만만찮다. 몇 년 전부터 일본 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더니 최근에는 중국 문학과 몽골 문학, 그리고 필리핀 문학에 대한 관심까지 덧붙여져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육일 승천의 기세다. 동아시아 문학의 번역이 기타 지역 문학의 번역 건수를 훌쩍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한때 유럽 문학, 소련동구 문학, 라틴아메리카 문학, 그리고 아프리카 문학이 한국 문학 전반에서 누렸던 명성을 이미 뛰어넘는 듯하다. 하여간, 최근 한국 문학 전반의 중요한 관심사는 동아시아 문학이며, 또 한국 문학의 핵심적인 화두는 단연 동아시아라는 환상 체계이다.

글_류보선

한국 문학의 편향성에 대한 도전

최근 한국 문단이나 독서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일고 있는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우선 반갑다.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학 전반,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망령처럼 떠돌고 있는 어떤 편향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근본적인 자기반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의해 편입된 이래 한국 문학 전반을 집요하게 지배하던 정치적(무)의식은 새것 콤플렉스(혹은 향보편 콤플렉스) 혹은 중심을 향한 페티시적 동경이었다. 한국 문학 전반은 그들에 의해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과 자존이 순식간에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원한 대신 우리가 중심부에 훨씬 뒤처져 있다는 모멸감에 사로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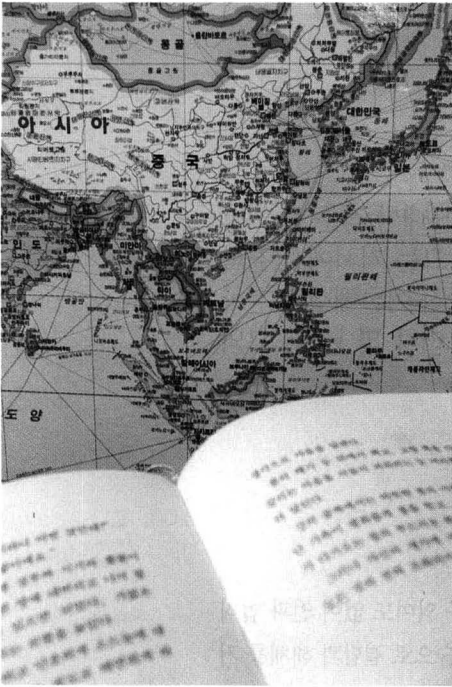
서구인이 전방위적인 담론체계를 구축해 놓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역사지리지 때문일 터인데, 당시의 식민지 지식인들은 그만 이 문제투성이인 오리엔탈리즘적인 역사지리지에 현혹되어 버린다.

근대 이후 지식인들의 변함없는 화두가 '서구적인 세계를 이식 모방하는' 민족개조' 였던 바 이는 전적으로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역사지리지 때문이었으며, 한국 문학 전반이 '서구문학 혹은 중심부 문학의' 이식과 모방 충동에 의해 전개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랬던 것인데 최근 들어 비야흐로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것이다. 그것도 세계 문학의 한 의미 있는 좌표로 인정되며 말이다. 그러니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대대적인 번역, 소개는 그동안 한국 문학의 편향성에 대한 중대한, 그리고 근본적인 도전이라 수밖에는.

또다른 옥시덴탈리즘적 오만과 편견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전도된 역사지리지에서 허우적대던 한국 문학이 이제 그 오랜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최근의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에는 몇몇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 우려가 몇가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국 문학을 위축시킬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동아시아



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편향성 때문이다.

그렇다. 최근 각광받는 일본 문학을 위시한 동아시아 문학에는 분명 어떤 편향성들이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첨단 문명이나 사회풍속에 대한 현미경적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옥시덴탈리즘적 편향성이다.

먼저 전자의 편향성은 주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일본 문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요

즘 널리 읽히는 일본소설들, 예컨대 《걸》 《남쪽으로 튀어》(오쿠다 히데오), 《냉정과 열정 사이》(에쿠니 가오리, 츠지 히토나리) 등의 정치적 (무)의식은 라캉적 의미의 현실도피주의이다.

이들 소설은 한결같이 현실 너머의 무시무시하고 매혹적인 실재들을 기피한 채 끊임없이 현실 속으로, 일상성 속으로 도피한다. 그리고 현실 원칙에 붙들린 문명인들의 권태, 고독, 허무, 죽음 충동, 그리고 열정적 사랑 등을 때로는 냉소적으로 또 때로는 열정적인 어조로 그려낸다.

하지만 이들 소설의 냉소와 낭만적 열정은 공허하다. 때문에 이들 소설 속에는 최첨단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사회 풍속이 자세하게 그려지나 현존재들에 대한 깊은 성찰도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고유한 방식의 발생법 혹은 내러티브는 찾을 수 없다.

최근 우리 독서계에서 각광 받고 있는 동아시아 문학의 또 하나의 계보는 동아시아 각국의 불행했던 역사를 서사적으로 복원한 소설들이다. 《에르미따》(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 《맑은 타미르강》(차드라발 로도이담바) 등이 이에 해당하는 소설들로 이들 소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국의 치욕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편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국 국민의 생존과 자존을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시킨 오리엔탈리즘적 역사지리지에 대한 일방적 분노이다. 이 분노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구 중심의 역사의 피해자이므로 우리는 절대 옳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옥시덴탈리즘적 오만과 편견으로 귀착되기에 이른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부로 가는 한국 문학을 위해

정리하자면 이렇다. 최근의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중심을 향한 동경이라는 이제까지 한국 문학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화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 문학의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편향성에는 또 다른 편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동양 사회가 최첨단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전도된 역사지리지에 기반한 현실로의 도피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옥시덴탈리즘이다.

한마디로 한국 문학의 어떤 편향성을 넘어서기 방안으로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인데, 자칫 이런 관성에 그대로 따른다면 한국 문학 전반은 또 다른 편향성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문학이 몰려오고 있다고 환호하거나 우려할 것만이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 문학이 보이고 있는 편향성을 넘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계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축천 무후》(바둑 두는 여자)(산사), 《나, 제왕의 생애》(쑤통), 《형제》(위화) 등의 소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아니, 동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굳이 멀리서만 찾을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검은꽃》(김영하), 《남한산성》(김훈), 《리진》(신경숙) 등 최근의 한국 문학에도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하여 세계문학사에 등재될 만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담아낸 소설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학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지도 모른다. 한국 문학 자체가 이미 동아시아 문학의 가능성과 편향성을 넘어서며 또 한 번의 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 문학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은 곧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 문학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부로 몰려가고 있다. **주필**

류보선님은 군산대 국문과 교수로 문학평론가이다. 저서로는 《또 다른 목소리들》 《경이로운 차이들》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등이 있다.